

통일 교육, 고리타분하다고요?
교양과 재미, 감각적 디자인으로 돌아온
2020 <손안의 통일>



「손안의 통일」(6~10권)

6 북한 뉴스 바로 보기

구본권 지음

7 아빠와 딸, DMZ를 건다

최동균 지음

8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석 · 이태호 · 임현조 · 정한울 지음

9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함규진 지음

10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박계리 지음

친근한 소재로 대중성 높인 <손안의 통일> 시즌 2

딱딱한 통일 교육에 교양과 재미를 담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맞춤형 통일 교육서 <손안의 통일> 시리즈가 시즌 2로 돌아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열린책들 출판사가 공동 기획·제작한 <손안의 통일>은 기존의 주입식 통일 교육을 탈피하고, 통일과 평화 문제를 독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된 문고 시리즈이다.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독자들 스스로가 평화는 왜 필요한지, 평화와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하는 힘을 길러 준다. 2019년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우리의 소원은 평화』 등 5권을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2020년 새로운 소재와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독자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 출간된 2020 <손안의 통일>(6~10권)은 <통일 교육>이라는 목적에 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재와 내용, 스토리텔링 면에서 대중 독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다. 역사, 여행, 예술, 미디어 등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를 특징으로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도 가상의 역사 인물을 등장시켜 토론을 열거나(9권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아빠와 딸의 대화 형식(7권 『아빠와 딸, DMZ를 걷다』)을 빌리는 등 친근감과 읽는 재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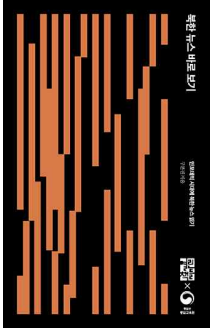
그럼에도 각 권의 교양적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박계리 교수의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은 풍부한 시각 자료에 저자의 인문지리학적 지식이 녹아 있어 금강산에 대한 매력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지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구본권 기자의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역시 북한 오보의 역사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돋보이며, 디지털 정보 사회의 현안인 가짜 뉴스 논란에까지 문제의식을 확장시킨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분석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통일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성별에 무관하게 적절한 배움과 숙의 조건만 갖춰지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2020 <손안의 통일>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달라진 표지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2019년 시리즈의 그라데이션이나 컬러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각 권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본문 역시, 각 권의 콘텐츠 성격에 따라 삽화의 수를 가감했고, 사진이나 회화 작품,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했다. 새로 바뀐 디자인 역시, 기존 통일 교육서의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은 간행사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을 고담준론의 성에 가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대중의 감성에 맞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시대를 <평화가 일상이 되는 시대, 통일을 마중 나가는 시대>로 정의하면서 <손안의 통일> 시리즈가 독자들에게 <평화·통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자, 평화·통일이라는 복잡한 길을 안내해 줄 좋은 여행서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

<평화·통일 교육>의 대중화에 선두에 선 <손안의 통일> 시리즈는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앞으로 이 시리즈가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고,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평화의 감수성이 널리 퍼지고 평화가 일상이 된 다음에는, 통일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리즈 6~10권 소개



6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지은이: 구본권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18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074-0 04300 978-89-329-1996-6(세트)



7권 아빠와 딸, DMZ를 걷다

지은이: 최동균

분 야: 인문/역사

형 태: 208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075-7 04300 978-89-329-1996-6(세트)



8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 김춘석 · 이태호 · 임헌조 · 정한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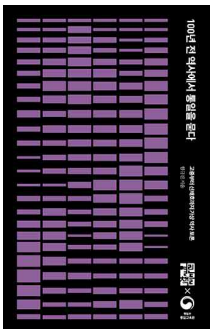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18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076-4 04300 978-89-329-1996-6(세트)



9권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지은이: 함규진

분 야: 인문/역사

형 태: 152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077-1 04300 978-89-329-1996-6(세트)



10권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역은이: 박계리

분 야: 인문/예술

형 태: 248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078-8 04300 978-89-329-1996-6(세트)

6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북한에 대한 보도, 왜 자꾸 틀릴까?

신문과 방송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 보도와 관련해 유난히 신뢰성이 낮다. <특종 보도>라면서 북한 주요 정치 지도자의 처형과 숙청 사실을 자신 있게 보도하지만, 그 인물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두 언론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구조적인 요인이나 관행이 있음을 알려 준다. <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잦은 오보는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북한 관련 보도 분석과 대응책이 책의 핵심이지만, 북한 관련 오보가 오늘날 디지털 정보 사회와 관련이 깊다는 인식과 진단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짜 뉴스 현상으로 문제의식을 확장시킨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북한 대상 오보와 허위 정보의 사례 및 유형,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현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왜 북한 대상 오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되는 구조적 요인들과 언론계의 보도 관행 및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인포데믹 환경에서 이용자가 오보와 허위 왜곡 정보를 식별해 내는 방법을 전달한다. 4장에서는 북한 관련 오보가 단지 언론 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정보에 취약한 인간의 인지적 성향과 관련이 깊음을 논증한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1장 북한 보도의 현실

- 1 북한 관련 다양한 가짜 뉴스와 오보
- 2 오보의 영향: 안보와 경제, 신뢰 훼손

2장 북한 관련 오보의 이유와 배경

- 1 북한 사회의 특수성과 북한의 언론
- 2 북한 정보에 대한 수요
- 3 북한 관련 오보의 구조적 요인
- 4 북한 정보의 정치적 이용이 만드는 오보

- 5 오보에 사과하지 않는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
- 6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상업적 목적의 1인 매체
- 7 북한 취재 보도의 윤리와 자율 규제

3장 가짜 뉴스 판별법

- 1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 2 가짜 뉴스는 무엇을 노리는가
- 3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4장 왜 미디어 리터러시인가

- 1 무한 정보 환경과 인식 능력
- 2 우리는 왜 거짓 정보에 현혹되는가
- 3 한국 사회와 비판적 사고
-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은이_ 구본권

오랫동안 취재·보도를 해온 현직 신문 기자이자, 언론학과 디지털 사회 변화를 연구하며 저술·강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장 기반 연구자이다. 1990년부터 『한겨레』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서울시 교육청 미래교육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 교수를 지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저널리즘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신문과 방송』, 계간 『미디어리터러시』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트러스트위원회, 미디어리터러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뉴스를 보는 눈』, 『뉴스, 믿어도 될까?』,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공부의 미래』,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등이 있고, 『잊혀질 권리』, 『페이스북을 떠나 진짜 세상을 만나다』를 우리말로 옮겼다.

7권 아빠와 딸, DMZ를 걷다

아빠, DMZ에 가면 뭐가 있나요?

20세기 중반,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는 그때의 상처를 입은 채로 아직도 임진강 주변에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중이다. 이 책은 대학생 딸과 아빠의 대화 형식을 빌려 평소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비무장 지대와 민통선 인근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오두산성부터 반구정까지, 호로그루성부터 자유의 다리까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파주·연천의 한강 하류와 임진강, 한탄강 하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인류의 거주 흔적이 가장 많았던 곳 중 하나이며,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는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스스로 깨닫고, 기성세대는 체제를 뛰어넘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분단의 경계에 숨겨진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독자 모두가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책은 교육적 측면 말고도, 여가 활용 콘텐츠로서의 실용성도 더했다. 각 장 도입부에는 해당 지역의 사진과 답사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 주변 명소까지 소개하고 있어 답사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 1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숨어 있는 광개토 대왕의 복수심
- 2 칠중성의 영국군은 <한국판 스파르타 300>이었다
- 3 허준 선생 앞에 줄을 서시오
- 4 조선 최대의 가짜 뉴스: 황희는 청백리다!
- 5 경기도 연천에 고려 종묘와 신라 왕릉이 있다?
- 6 과연 임진나루 옆 화석정은 선조의 피난길을 밝혔는가?
- 7 호로고루에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
- 8 정말 장군이 왜 거기서 나와?
- 9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강이 아닌 땅 위에 있는 이유
- 10 로또 맞은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

지은이_최동균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1973년 부산 연제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동해중학교, 동인고등학교를 거쳐 1991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문화와 역사에는 특별한 지식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시민이었다. 1997년 처음 참여한 경주 문화 답사에서 큰 감명을 받고, 그 후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독학으로 공부했다. 평소 <배워서 남 준다>라는 소신으로 많은 문화 답사 강좌 및 모임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전파하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문화 해설사 입문>을 강의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교문화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유교 문화 리모델링> 과목을,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과목을 강의했거나 강의 중이다. 현재 지우학문화연구소의 대표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현판으로 읽는 우리 문화재」(전3권), 「실록으로 읽다」(전4권), 「나도 문화 해설사가 될 수 있다」(전5권) 등 시리즈와 『공자 왈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정조반차도: 8일간의 화성행차』, 『국립고궁박물관: 현장학습 1번지』(2017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답사여행 1번지 경주』, 『문화재 속 숨어 있는 역사』 등이 있다. 그 밖에 논문으로는 「2016 향교·서원 활용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8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 배움과 토론으로 좁힐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평화·통일 인식의 변화를 정리했다. 2년간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북한을 보는 시각(존중과 협력의 대상 vs 대결과 극복의 대상), 통일에 대한 인식(한 체제로의 통합 vs 두 체제의 공존), 인도적 지원(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 vs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 등 세 의제를 핵심으로 다루었다.

남북 관계 및 통일과 관련된 분야는 확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필자들은 두 해 전만 해도 <사회적 대화>가 온전히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전과 후 참여자들의 생각의 변화 양상과 폭, 합의를 위해 발휘된

시민 의식과 관용 정신은 놀라운 결과로 다가왔다.

<사회적 대화> 후에 태도를 바꾼 참여자는 의제별로 최소 60퍼센트에 육박하거나 최대 90퍼센트에 근접했다. 기존 생각을 바꾼 참여자가 놀랍게도 과반을 넘었다. 필자들의 결론은 이렇다. 학습할 기회가 부여되고 속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시민들은 잠재되어 있던 관용의 정신을 드러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성별에 무관하게 적절한 배움과 속의 조건만 갖춰지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1장 우리 사회의 통념과 그에 대한 도전

1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두 가지 통념

2 통념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2장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인식 지형

1 개괄

2 북한, 통일, 남북 관계의 인식 지형

3 민주적 시민 의식에 미친 영향

4 2030 세대 인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

결론: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 준 사회적 대화

부록: 2년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요

지은이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 겸 공론화센터장. 북한 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국민대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공론조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 조사, 대입제도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수행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겸 평화군축센터 소장. 300여 개 진보적인 시민 단체의 전국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운영 위원장이기도 하다. 평화군축 운동,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운동 등 주로 권력 남용 방지와 평화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현조

250여 개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 대표 겸 사무총장.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민중당, 민주노동당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전향하여, 2005년 뉴라이트 전국 연합 초대 사무처장, 2010년 선진통일연합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겸 리서치 디자이너. 고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선거정

치, 대외안보인식, 거버넌스 분야의 여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재)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재)여시재 연구조정팀장 등을 역임했다.

9권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100년 전 우리 역사의 치열한 논쟁 속으로!

100년 전 우리 역사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등장시켜 가상 역사 토론을 진행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토크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100년 전 조선의 실패이다. <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거대한 나라가 못되었을까>, <왜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저자는 고종, 명성황후, 이완용, 신채호 등 당대의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선-대한제국의 망국 뒤에 숨겨진 이유를 추적해 나간다. 그 원인의 가장 큰 몫은 제국주의 열강이 득세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패착을 거듭했던 조선의 권력자들이다.

이 책은 가상 인물들의 격렬한 논쟁과 변명,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가 코믹하게 그려지지만. 교훈적인 메시지도 빼놓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개화기-구한말,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서던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많이 닮았다. 당시의 국가적 과제가 국권을 지키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회를 한 단계 높이 발전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멀리 통일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역사가 과연 어떤 가르침을 줄지, 당대의 주역들을 불러 그날의 사건들을 복원해 본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 1부 조선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나
- 2부 조선은 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는가
- 3부 100년 전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은이_함규진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 『세계사를 바꾼 담판의 역사』, 『영조와 네 개의 죽음』,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유대인의 초상』,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왕의 밥상』(2010년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2010년 책따세 추천도서),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고종, 죽기로 결심하다』, 『왕이 못 된 세자들』 등이 있고,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정치 질서의 기원』, 『대통령의 결단』, 『나는 죄 없이 죽는다』,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죽음의 밥상』, 『팔레스타인』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10권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내금강부터 해금강까지, 옛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전통 시대에 금강산을 다녀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와유(臥遊, 누워서 유람하기)> 라는 방식을 생각해 냈다. 금강산에 다녀온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펼쳐 놓고 그 그림을 통해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다. 금강산은 예전부터 눈으로라도 걷고 싶은 산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통일교육원 박계리 교수는 정선, 김홍도, 김하종 등 전통 시대의 화가들이 남긴 금강산 그림을 통해 와유를 시도한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걸었던 금강산 루트를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둘러보고 있다. 각 명소를 그린 회화 작품은 그것대로 빼어나지만, 박 교수의 비평과 인문지리적 깊이가 느껴지는 해설은 함께 와유를 떠나는 독자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와유 중간중간 삽입한 북한 현대 작가들의 미술 작품은 북한 그림을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독자들에게 색다른 감각으로 다가온다. 북한 미술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금강산에 꼭 가보고 싶은 이유는, 금강산이 북한에 있어서가 아니다. 금강산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강산 회화에 대한 역사·미술적 가치는 물론 금강산 그대로의 자연 미학적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지금은 가기 힘든 산, 금강산으로 와유를 시작해 본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들어가며

1부 누워서 유람하는 내금강

- 1 단발령, 금강산 유람의 서막을 올리다
- 2 장안사, 금강산 유람의 도입부로 들어가다
- 3 명연, 패자의 울음과 비극의 전설을 듣다
- 4 삼불암, 승자독식의 기념비를 지나다
- 5 백화암, 조선부도의 적막장대한 풍격을 느끼다
- 6 표훈사, 내금강 유람의 중심지에 하룻밤 묵고 가다
- 7 정양사와 혈성루, 금강산 법기보살과 일만 이천 권속을 만나다
- 8 천일대, 금강산 파노라마를 그리다
- 9 만폭동, <봉래풍악 원화동천>이라고 쓰다
- 10 분설담과 진주담, 여덟 구비 계곡을 노래하다
- 11 보덕굴, 하늘에 매달린 암자
- 12 마하연, 마하야나의 숲길을 따라가다
- 13 묘길상, 아미타불의 모습을 한 문수사리보살
- 14 명경대, 여기가 저승의 입구라네
- 15 영원암, 금강산에서 가장 깊은 고요에 잠기다
- 16 백담동, 하늘이 만들어낸 탑들
- 17 원통암, 또 하나의 만폭동을 발견하다
- 18 수미탑, 여기 우주의 중심을 선언하다

2부 누워서 유람하는 외금강

- 1 만물초, 외금강 유람의 클라이맥스
- 2 신계사,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모델이 되다
- 3 비봉폭, 봉황이 나래를 펴고 꼬리를 휘저으며 날아오르다
- 4 구룡연, 아홉 마리 용을 숨기다
- 5 발연과 치폭, 조선 시대판 워터파크에서 물 미끄럼을 타다
- 6 은선대에서 십이폭포를 바라보다
- 7 유점사, 53불의 전설이 서린 터에 서다
- 8 효운동, 새벽 구름을 헤치고 안무재로 향하다
- 9 외선담, 금강골에 띄워진 세 척의 배

3부 누워서 유람하는 해금강

- 1 삼일호, 사선의 풍류를 기억하다
- 2 해산정, 바다와 산을 함께 품다
- 3 해금강, 바다 만물상의 절경에 빠지다
- 4 영랑호, 화랑 영랑의 전설이 깃든 호수에 기러기 날아 앉다
- 5 현종암, 53불과 범종을 실은 배를 묶어 두다
- 6 구선봉과 감호, 선녀와 나무꾼의 명소가 분단되다
- 7 총석정, 사선의 옥기둥 바다에서 솟아 하늘을 이다
- 8 천도, 통천삼도를 이끌고 바다에 떠오르다
- 9 금란굴, 불로초를 탐낸 해적선을 침몰시키다
- 10 시중대, 관동십경의 최북단을 찍고 이젠 집으로……

나가며

참고문헌

지은이_박계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융합 예술 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각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사회의 내면을 포착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존의 공감력이 작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 예술의 역할에 주목하여 남북한 문화 예술과 사회 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모더니티와 전통론』(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작품으로 본 북한과 우리 안의 분단 트라우마』, 『북한 패션의 변화와 금기』 등이 있고,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김정은 시대 <수령>색 조각상 분석」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

■문의 및 자료 요청

기획편집팀 차장 김태권(T. 031-955-4025, M. 010-8864-0641, E. tack544@openbooks.co.kr)